

현대 모피패션에 나타난 미적특성에 관한 연구

- 1980년대 이후 Vogue를 중심으로 -

황재윤·김정미*

부경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석사과정·부경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A Study on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Modern Fur Fashion

- Focused on Vogue since the 1980s -

Jae-Yun Hwang · Jeong-Mee Kim^{*}

M.A.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rof., Dept. of Fashion Desig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2015. 8. 31. 접수; 2015. 10. 9. 수정; 2015. 10. 13. 채택)

Abstract

In this study, characteristics of modern fur fashion were reviewed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shown in fur fashion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Aesthetic characteristics shown in fur fashion between 1980s and 2000s are conspicuousness, sensuality, elegance, activity, humor and abnormality. Conspicuousness was displayed in oversized fur coat in vivid leopard pattern, mink coat trimmed with rich fox fur or leopard patterned fur jacket in hot pink. Sensuality was displayed in white and gray soft mink coat worn over mini dress, soft mink jacket which is short enough to expose legs or soft fox best accentuating chest and arms. Elegance was displayed in soft fox coat in silver, luxurious mink coat with slim silhouette that flows with body line or silver bolero made of mink and silk with slim silhouette. Activity was presented in mink pullover with loose silhouette or rabbit jacket that emphasized functionality by having zippers or hem made of rubber. Humor was presented in unique and humorous patterned fur jacket or exaggerated and unique form of fox bolero. Abnormality was presented in mink jacket made of combining alien material with deformed proportion and form or outer that emphasized vague form by using long and big fox fur.

Key Words: Fur fashion(모피 패션), Conspicuousness(사치성), Sensuality(관능성), Elegance(우아성), Activity(활동성), Humor(유머성), Abnormality(기괴성)

I. 서론

국제 모피협회 대표인 마크 오튼(Mark Oaten)은 “육선 하우스와 디자이너들이 계절에 상관없이 더욱 아름답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모피

테크닉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모피 산업은 점점 한정된 아이템을 벗어나 선택의 폭을 확장시켜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원형, 2015). 최근의 모피는 눈에 띄게 슬림해지고 패셔너블해진 경향을 보이고 있다. 크레파스처럼 알록달

Corresponding author ; Jeong-Mee Kim
Tel. +82-51-629-5367, Fax. +82-51-629-5354
E-mail : jmkim@pknu.ac.kr

록한 컬러풀한 모피와 과감한 프린트도 눈에 띄며(James Cochrane, 2011), 모피의 풍성함을 한결 날씬하게 변형한 형태의 디자인, 다양한 소재나 색상 등으로 모피소비의 평균 연령대는 더욱 더 젊어지며 다양한 연령층에 애용될 전망이다(박선영, 2010).

한편 모피패션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염색 및 소재개발(안보연, 2005; 이오택 외, 2010), 체형 및 의복구성(이원섭, 2012; 김정하 외, 2008; 김지영, 2014), 상품기획 및 소비자 행동(서동민, 2013; 이수영, 2002; 김지영, 2014), 디자인 분석 및 개발에 관한 논문(임주희, 2009; 김영애, 2012; 이유형, 2009; 배미화, 2014; 박주영 외, 2002; 강다혜, 2007) 등이 있다. 이 중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 있는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강다혜(2007)는 현대 모피패션에서 앤드로지너스 패션이미지·노스탈지아 패션이미지·하이브리드 패션이미지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영애(2012)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펜디 컬렉션을 살펴본 결과, 펜디의 모피패션에서는 엘레강스 이미지의 로맨틱시즘·모던한 미니멀리즘·컨트리풍의 내추럴리즘·미래지향적 퓨처리즘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모피를 사용한 복식은 과거 사회적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다양한 이미지를 표출하며 패션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모피패션에 관한 다양한 미적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이에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모피패션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 후, 모피패션에 나타난 미적특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현대 모피패션의 경향을 이해하고, 모피패션 상품기획 시 디자인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문헌연구는 패션 관련 사전, 국내·외 서적 및 논문을 주로 하고, 패션전문지 기사 및 인터넷 자료를 참고한다. 사례연구로는 1980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보그 「Vogue」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1980년대는 냉전의 종식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세계의 패션경향이 다양해지고 개성화된 시기이며(김민자 외, 2010), 「Vogue」는 1892년 12월 미국에서 창간

된 이래 오늘날 세계 각국판 으로 출간되고 있는 세계적인 패션전문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피의 계절적인 특성상 vogue 11월호에만 한정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II. 모피의 정의 및 종류

1. 모피의 정의

모피는 천연상태의 생가죽이나 펠트를 가공한 것으로, 털이 붙어 있는 것을 말하며, 털이 없이 무두질한 가죽과는 다르다(Calasibetta, 2006). 모피는 길이와 밀도, 부드러운 정도에 따라 분류되는데, 털의 종류에는 굵고 긴 상모와 그 아래에 있는 부드럽고 짧은 하모가 있다. 상모는 특유의 색으로 동물의 종류를 구별하게 하고,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며, 하모는 주로 보온의 역할을 한다(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 1997). 현재 모피의 약 8~10%는 야생동물에서, 90%는 목축된 동물에서 생산된다. 야생동물의 거래는 90개 이상의 국가가 가맹한 '종의 보호를 위한 워싱턴 조약'에 의해 통제되며 이 조약은 2년마다 재검토되어 관리되고 있다(에베를레, 2000). 또한 1969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멸종위기 동식물에 관한 조례'는 일부 동물의 가죽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1975년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 제정되어 모피 동물의 사육과 거래는 엄격한 규정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Calasibetta, 2006).

모피는 식물보다 먼저 의복에 쓰이기 시작한 소재이며(Calasibetta, 2006), 매우 부드럽고 실의 표면으로부터 돌출되어 있어 보온성이 탁월하여 방한용 겨울소재로서 매우 적합할 뿐만 아니라(안병기, 2004), 외관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패션 소재이다(최인려 외, 2007). 모피는 선선하고 바람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김은애 외, 2000). 또한 열과 마찰, 습도와 수분에 약하기 때문에 모피의 형태가 틀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세탁은 4~5년에 한번은 드라이크리닝해야 하며 부분적인 오염은 반드시 모피전용 크리너를 이용하여 제거해야만 한다(대동모피, 2008).

2. 모피의 종류

1) 폭스(Fox)

폭스는 캐나다 북부, 그린란드, 시베리아 등 극지에 서식하며. 캐나다산이 최상품으로 실기한 감축을 지녔다. 색상으로 순백색, 청색, 회갈색, 암갈색 등이 있으며(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 1997), 털의 길이가 길고 조밀하며 광택이 우수하다(안병기, 2004). 또한 화이트폭스, 레드폭스 등 종류가 다양하며 목도리나 코트 등에 주로 사용된다(패션큰사전 편찬위원회, 1999)

2) 라쿤(Raccoon)

라쿤은 폭스보다 작고 주둥이가 뾰족하며 꼬리가 몽푹하다(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 1997). 긴 털을 가지고 있으며, 솜털이 치밀하고, 색상으로는 연한 갈색에서 진한 갈색으로 회색과 검정색의 긴 보호털이 나 있다. 자연색 그대로 사용하거나 염색해서 코트나 재킷 등에 주로 사용한다(패션큰사전 편찬위원회, 1999).

3) 밍크(mink)

밍크는 족제비과에 속하는 짐승으로, 여성용의 고급 외투 등에 쓰이고 있다. 밍크는 색깔이 우아할 뿐만 아니라 털의 양이 풍부하고 탄력이나 촉감이 좋아 모피가 지닌 모든 특성을 갖추고 있다. 색상은 브라운계통이 주를 이루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블루 계통이 아주 짙은 블루그레이부터 흰색까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 1997).

4) 세이블(sable)

세이블은 족제비과의 동물로 검은담비를 말한다. 시베리아산이 가장 품질이 좋으며 털이 길고 진한 갈색으로 약간의 청색을 띠고 있다(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 1997). 털이 조밀하고 광택이 매우 뛰어나고(안병기, 2004), 그 희소성으로 매우 고가이며, 호사스럽고 드레시한 느낌을 가진 모피로 코트나 재킷 등에 대부분 사용된다(패션

큰사전 편찬위원회, 1999).

5) 친칠라(chinchilla)

친칠라는 다람쥐과에 속하는 작은 짐승으로 가장 비싸고 귀한 털로 꼽힌다(안병기, 2004). 남미의 안데스 산맥이 주산지인 다람쥐의 모피를 말하며, 털의 길이는 2~4cm 정도이고(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 1997), 실크와 같이 섬세하고 부드럽고 값이 비싸며 드레시한 취향이 있다(패션큰사전 편찬위원회, 1999).

6) 스쿼렐(squirrel)

스쿼렐은 러시아,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캐나다 등지에 서식한다(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 1997). 털은 짧고 꼬임이 있으며(안병기, 2004), 가볍고 부드러우며 조밀하다. 색은 다양하며 적갈색의 줄무늬가 있는 것도 있다. 러시아, 스칸디나비아 산(産)의 진한 회색과 푸른색의 모피가 최고급품으로 여겨진다. 용도는 주로 솔 등에 사용된다(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 1997).

7) 래빗(rabbit)

래빗은 양식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값이 싸고 손쉽게 구할 수 있어 모피코트의 소재로 인기가 있다(패션큰사전 편찬위원회, 1999). 색은 흰색, 황색, 검정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비버·누트리어 등과 비슷하도록 깎기도 하고, 다양한 색상으로 염색해서 사용한다. 다른 이름으로 코니(coney), 라팽(lapin)이라고도 불린다(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 1997).

8) 머스크랫(muskkrat)

머스크랫은 미국과 캐나다 등지의 물가에서 서식하는 사향뿔쥐를 말한다. 작은 집고양이 정도의 크기로 모피는 아주 질기다. 회색의 솜털과 길고 광택이 있는 암갈색의 보호털로 되어 있으며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고(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 1997), 드레시한 코트 등에 주로 쓰인다(패션큰사전 편찬위원회, 1999).

9) 레오파드(Leopard)

레오파드는 주로 아메리카, 인도, 중국, 아프리카 등에서 생산되는 고양이과의 동물로, 전체적으로 황색 바탕에 불규칙한 검은색 반점이 있다. 털이 짧으며 매우 부드럽고, 광택이 아름다운 것이 특징이다(한국모피제품공업협동조합).

이 외에도 모피의 종류로는 링크스, 담비, 오소리, 비버, 뉴트리아, 카라쿨, 물개, 양, 낙타, 오리탈락 등이 있다.

3. 가공법 및 제조과정

모피의 외양을 향상시키는 가공법에는 염색공법, 컨디셔닝공법(conditioning), 셰이핑공법(shaping), 쉬어링(shearing), 플러킹(plucking), 레이저(lazer) 등이 있다. 먼저 염색 공법은 모피 천연의 색을 개선하거나 더 균일하게 만들며 다양한 색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만, 모피의 품질을 고려하면 염색이 가능한 색상이 제한되기도 한다. 컨디셔닝 공법은 나무로 된 압반을 제거한 후 털가죽 조각을 톱밥에 넣어 다시 컨디셔닝하여 원하는 패턴으로 정확하게 재단하는 것이다. 셰이핑 공법은 털가죽의 가죽면에 수분을 주어 부드럽게 만들고 형태를 변형시키는데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12시간 동안 건조시키고 압반을 제거하면 형태가 유지되며 모서리가 둥글거나 심 롤러가 있는 나무로 된 성형기를 이용하여 솔기를 매끄럽게 한다(에베를레, 2000). 쉬어링은 일정한 높이로 털을 깎는 것을 말하며, 플러킹은 뺏뺏한 장모를 제거하여 부드러운 털만 효과적으로 얻게 하는 공법이다. 그리고 레이저공법은 모피 표면에 드라마틱한 효과나 특별한 문양을 부여하는 데 사용된다(saga furs, 정세연에서 재인용, 2011).

모피의 제조과정에는 140가지의 단계로 분리된 화학적 공정이 따른다. 그 중 몇 가지 주요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침지는 딱딱하고 부러지기 쉬운 모피를 정적상태 또는 교반하면서 물에 침지하여 원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이다. 다음은 수세 과정으로 새끼양처럼 오염이 심한 털가죽이나 기계적인 힘에 견딜 수 있는 단단한 털가죽들을 중성용약에서 수세한다. 그리고 제육과정으로 기계나 손으로 털가죽 안에 붙

어 있는 육질을 떼어내는 것이다. 피하조직을 제거하면 이후의 공정에서 약품의 침투가 쉬워진다. 그리고 나서 산침, 소독 과정으로 제혁전의 준비공정이며 산과 염육액의 작용으로 털이 스킨에 단단히 붙어 있게 한다. 제혁은 스킨을 가죽으로 만드는 것으로 광물염과 합성 탄닌을 사용하여 스킨과 털이 잘 붙어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톱밥 드럼과 컨디셔닝 단계로 여분의 오일, 먼지, 염 등을 제거하고 털에 광택을 주며 가죽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따뜻한 기류가 흐르는 드럼에 톱밥과 함께 넣고 돌려준다. 그 후 원하는 두께에 따라 균일하도록 가죽면을 깎는 면도 공정과 수선 등을 통해 완성된다(에베를레, 2000)

Ⅲ. 현대 모피패션의 특징

1. 1980년대 모피패션

1980년대는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와 정책으로, 소비가 촉진되는 사회가 되었고 국민들은 경제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 시기에 전문직에 종사하는 젊은 엘리트층인 여피족이 등장하면서 산업계, 정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물질주의와 소비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직업적 성공과 경제적인 부에 가치를 두는 부류이다. 여피족들은 자신들의 외모가 성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여 외모 가꾸기에 벌어들인 소득을 과감히 투자했다(김정미 재인용, 2011). <그림 1>은 1982년 Evans의 모피코트로, 길이가 긴 오버사이즈 실루엣에 은은한 광택의 풍성한 폭스를 사용하였다. 블라우스와 팬츠도 폭스와 비슷한 색상으로 통일하여 차분함을 고급스럽다. 또한 <그림 2>는 1987년 Mary Mcfadden이 발표한 모피코트로, 검은색 원피스와 함께 코디 되었다. 모피코트는 크고 과장된 오버사이즈 실루엣에 칼라가 어깨를 덮을 만큼 큰 칼라가 특징이다. 특히, 화이트와 브라운 색상이 섞인 레오파드 무늬가 화려한 느낌을 주고, 장갑과 골드 색상의 이어링, 벨트 등의 액세서리로 화려함이 더해졌다.

이 시기는 돈과 이미지에 집착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듯 고가의 과시적인 패션을 지향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Valerie & Amy, 2003), 특히 발렌티노, 디올, 오스카 드 라 렌타 등 고급브랜드에서는 고가의 폭스와 밉크, 라쿤 등을 사용한 코트로 우아하면서 럭셔리한 패션을 선보였다. 그리고 미니스커트와 미니드레스 위에 모피를 매치해 글래머러스한 스타일을 연출하는 것이 유행하였는데(이상봉, 2007), <그림 4>는 1989년 발표된 디자인으로 모피코트와 글래머러스한 미니드레스와 매치되어 섹시함이 느껴진다. 모피코트는 거대하고 긴 오버사이즈 실루엣이며, 화이트와 그레이가 혼합된 색상으로 화려한 느낌을 준다. 가공법에서도 모피조각을 이어 붙여서 독특하고 고급스러움을 나타냈고, 길고 풍성한 소재로 과시적이다. 여기에 장갑, 선글라스 등과 함께 매치되어 섹시함이 강조되었다. 전문직 중역의 여성들은 전형적인 깔끔한 슈트로 야망 있는 여성의 능력과 적극성, 권력, 권위성을 표현했고(Valerie & Amy, 2003), 김정미(2011)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파워슈트의 미적특성으로 권위성, 관능성, 사치성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여피의 등장과 함께 앤드로지너스 룩, 아르마니 스타일이 유행하였는데, 1980년대에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했으며, 여피족 여성들은 직장 내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로 인정받기 위해 파워드레싱을 선보였고, 이는 아르마니 스타일로 대표된다. 아르마니는 1980년대 중반 트렌드를 이끄는 최고의 선도자로서 부드럽고 여유 있는 실루엣과 넓은 어깨, 긴 라펠 등으로 대표되며, 이러한 아르마니의 디자인은 경제적 능력과 권위를 표현하고 싶어 했던 여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이진민, 2012). <그림 3>는 오스카 드 라 렌타의 모피코트로, 고급스러운 화이트 셔츠와 와이드팬츠로 파워드레싱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다크브라운 컬러의 라쿤을 사용한 오버사이즈 롱코트를 매치하여 여유와 자신감이 넘치는 여피룩을 선보였다.

2. 1990년대 모피패션

1990년대는 세기말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으며, 글로벌리즘의 영향으로 '세계는 하나의 지구'임

을 실감하게 하였다. 패션에 있어서도 1990년대의 주요 키워드는 스타일보다는 세계화였다. 전 세계인의 생활 변화에 기반 하여 패션에 있어서의 새로운 글로벌리즘이 대두되었다(금기숙 외, 2012).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다원주의의 경향을 보였으며(김은희, 2002), 세기말적인 혼란으로 그린지룩, 레트로룩, 에스닉룩, 여러 가지 스타일의 혼합 등 다양한 트렌드가 공존했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는 거리패션의 영향으로 힙합, 스포티룩, 그린지 패션이 패션계를 휩쓸었다 <그림 7>은 1993년 Grosvenor의 모피 폴오버로, 모피에서도 거리패션의 영향을 받아 캐주얼 경향으로 나타났는데, 편안한 느낌의 빅사이즈 폴오버가 등장했다.

또한, 모피패션에서는 80년대에 비해 점차 슬림해지며 변화한 사치스러움과 우아함을 강조하였는데, <그림 5>는 1990년에 Grosvenor에서 발표한 모피코트로, 밝은 실버 컬러의 사용으로 우아하고 사치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실루엣에서는 여전히 80년대의 영향으로 오버사이즈 실루엣이 보여 지고 있지만, 얇은 소재인 밉크의 사용으로 한결 슬림해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림 6>은 Grosvenor의 모피코트로, 고급스럽고 광택이 뛰어난 밉크에, 네크라인과 소매를 따라 아주 풍성한 폭스로 트리밍이 되어 있다. 흰색부터 은색, 회색이 섞인 폭스는 화려하고 호사스럽게 느껴진다. 여기에 볼드한 액세서리로 화려함을 더했다.

그리고 1990년대가 되며 모피가 가벼워지고 신체의 노출이 많아졌는데, <그림 8>은 1994년에 Marc Jacobs가 발표한 재킷으로 이 재킷은 80년대 모피패션과는 다르게 슬림 하면서 몸에 타이트하게 피트 되는 실루엣으로 화이트컬러의 밉크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다리 부분을 모두 노출하여 신체의 노출을 통해 섹시함이 느껴진다.

3. 2000년대 모피패션

2000년대에는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패션을 새로운 시대의 소비자에 맞게 재해석한 패션이 계속 등장하였다. 발전하는 과학 기술을 패션 안에서 재탄생시킨 패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패션 아이템 등도 꾸준히 나왔

다. 또한 새로운 소재의 개발이 매우 중요해졌는데, 천연소재와 하이테크 소재의 결합, 그리고 가벼움이 소재 개발의 키워드였다. 특히 1980년대의 복고풍이 돌아오면서 대표적 하위문화였던 핑크룩이 다시 유행하였다. 스트리트 스타일과 함께 가죽재킷, 바이커재킷의 인기가 지속되었으며 이 시기의 핑크룩은 사회에 대한 반항을 표현한 것 이라기보다는 실용적 패션 트렌드의 하나로서 받아들여지며 키치룩, 고스룩과 아방가르드룩도 이어 유행했다. <그림 9>는 2001년에 발표된 Jean Paul Gaultier의 숏재킷으로 이 볼레로는 길이가 굉장히 짧은 대신, 길고 넓은 소매로 독특하고 재미있는 실루엣이다. 길이가 긴 폭스를 사용하여 핑크와 키치적인 요소가 더해져 유머러스하다. <그림 10>은 2003년 Gucci에서 발표한 모피코트로, 핑크색상을 사용하였음에도, 독특한 텍스처와 패턴, 그리고 과장된 빅 실루엣과 얼굴까지 올라오는 하이넥으로 아방가르드하고 과장된 패션을 완성시켰다.

또한 스포츠웨어에서 영향을 받아 스포티패션도 꾸준히 인기를 끌었는데, 건강하고 날씬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면서 후드점퍼, 트레이닝 바지 등이 많은 사람들의 기본 의류로 자리 잡았다.

모피패션에서는 코트나 재킷 외에도 베스트, 볼레로, 집업재킷 등의 다양한 아이템들이 등장하여 주로 몸에 피트되고 슬림하며 짧은 길이로 변화해 우아하고 섹시한 여성미를 강조하였다. 특히 소매를 완전히 없앤 베스트, 지퍼로 여밈을 한 재킷, 볼레로처럼 여밈이 없이 걸치는 형태의 아이템 등이 등장하여 가볍고 기능적이며 실용성을 강조하였다. <그림 11>은 2007년에 발표된 Rick Owens의 숏볼레로로 당시의 패션경향인 클래식룩의 영향으로 고전적이다. 몸에 피트되는 실크 블라우스와 광택있는 새틴소재의 스커트에 밍크 볼레로를 매치하여, 이질적인 소재들의 조합이지만, 고급스러운 실버색상으로 일관성을 주어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보인다. <그림 12>는 2009년 Origin Assured의 숏 베스트로 짧은 길이이지만 길이가 길고 풍성한 폭스를 사용하여 화려하고 강렬한 느낌이다. 여기에 그레이, 화이트, 블랙 등의 다양한 컬러가 혼합되어 화려한 패턴처럼 느껴져 섹시하고 관능적인 느낌을 주며, 소

매가 없는 베스트는 처음 등장한 것으로, 활동적인 느낌까지 더했다. 당시에는 락과 시크를 결합한 락시크패션이 유행했으며 모피에서도 이와 같이 나타났다.

<표 1>은 현대 모피패션의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

4. 결과 및 논의

1980년대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의 소비촉진정책과 물질만능주의의 만연으로 부에 가치를 둔 과시적 소비성향의 여피족이 등장하여, 글래머러스룩, 리치룩, 앤드로지너스룩, 파워슈트룩이 유행하였다. 또한 이때는 유명 디자이너들이 대거 등장하였는데, 특히 발렌티노, 디올, 오스카 드 라 렌타 등 고급브랜드에서는 고가의 폭스와 밍크, 라쿤 등을 사용한 코트로 우아하면서 럭셔리한 패션을 선보였다. 이러한 모피코트는 패드가 들어간 넓은 어깨와 넓은 칼라, 긴 길이와 거추장스럽고 거대한 부피로 과시적인 룩을 연출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1990년대에는 하위문화의 부상,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영향으로 패션에서는 스포티룩, 힙합패션, 란제리룩 등이 유행하였다. 모피패션에서는 80년대에 비해 점차 슬림해지며 여성스러운 우아함을 강조하였고, 모피가 가벼워지고 신체의 노출이 많아져 관능성 또한 강조되었다. 특히 길이가 짧은 모피재킷이 등장하여 몸에는 적당히 피트되어 움직이기 편해졌고, 작아진 칼라와 적당한 여유의 소매, 큰 패치포켓과 플랩포켓 등의 디테일로 기능성을 부여하였으며, 후드가 부착된 코트, 모피 폴오버가 등장해 캐주얼함과 활동성이 강조되었다.

2000년대에는 테러, 전쟁 같은 사회적 불안 요소들이 지속되며 복고풍의 영향으로 70년대와 80년대의 핑크룩, 고스룩, 아방가르드룩 등이 유행했다. 모피패션은 재킷 외에도 베스트, 볼레로, 집업재킷 등의 다양한 아이템들이 등장하여 주로 몸에 피트되고 슬림하며 짧은 길이로 변화해 우아하고 섹시한 여성성을 강조하였다. 소매 역시 피트하게 나타났고 소매를 완전히 없앤 베스트, 지퍼로 여밈을 한 재킷에서는 활동성이 나타났다. 그리고 볼레로처럼 여밈이 없이 걸치는



〈그림 1〉 1982년 Evans의 모피코트
(출처: vogue. (1982, 11))



〈그림 2〉 1987년 Mary Mcfadden
(출처: vogue. (1987, 11))



〈그림 3〉 1988년 Oscar de la lenta
(출처: vogue. (1988,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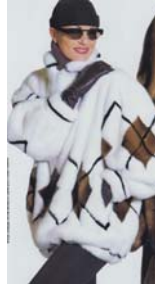
〈그림 4〉 1980년 Grosvenor의 모피코트
(출처: vogue. (1989, 11))



〈그림 5〉 1990년 Grosvenor의 모피코트
(출처: vogue. (1990, 11))



〈그림 6〉 1990년 Grosvenor의 모피코트
(출처: vogue. (1990, 11))



〈그림 7〉 1993년 Grosvenor의 모피 폴오버
(출처: vogue. (199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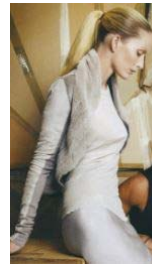
〈그림 8〉 1994년 Marc Jacobs의 모피재킷
(출처: vogue. (1994, 11))



〈그림 9〉 2001년 Jean paul gaultier의 모피블레로
(출처: vogue. (200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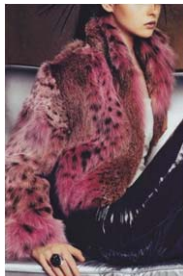
〈그림 10〉 2000년 Gucci의 모피코트
(출처: vogue. (2001, 11))



〈그림 11〉 2007년 Rick Owens의 모피코트
(출처: vogue. (2007, 11))



〈그림 12〉 2009년 Origin Assured의 모피코트
(출처: vogue. (2009, 11))



〈그림 13〉 2000년 Furcouncil의 모피재킷
(출처: vogue. (2000, 11))



〈그림 14〉 2002년 Guess의 모피재킷
(출처: vogue. (200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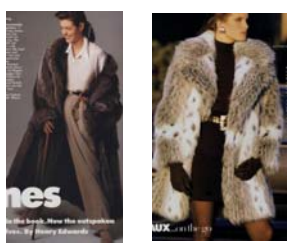




〈그림 15〉 2000년 Furcouncil의 모피재킷
(출처: vogue. (2000, 11))



〈그림 16〉 2001년 Nafa의 모피재킷
(출처: vogue. (2001, 11))

〈표 1〉 현대 모피패션의 특징

특징	시기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사회 · 문화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이건 대통령의 소비촉진정책 · 물질주의 만연 · 부에 가치를 둔 여피족 등장 · 모피반대운동단체 PETA 활동 · 여피룩, 앤드로지너스룩, 파워수트룩 · 인조모피의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의통일 · 소련의 공산당 해체와 각 공화국들의 독립 · 하위문화인 모즈, 히피, 펑크, 힙합이 유행 · 환경보전을 위한 리우환경회의 개최 · 환경문제의 대두 · 웰빙과 슬로우라이프 출현 · 포스트모더니즘 · 클래식룩 · 스포티룩, 힙합패션, 그랜지룩 · 펑크패션, 히피스타일 · 자연주의패션, 환경친화적 패션 · 관심, 슬로패션, 인조모피 유행 · 다원화, 다양향 트렌드, 해체주의래선, 북고풍, 에스닉룩 유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1테러 · 아프가니스탄침공 · 마드리드테러 등 사회불안지속 · 애플의 아이폰 출시 · 페이스북, 트위터 서비스개시 · 북고풍 · 에콜로지룩, 보헤미안룩 · 하이테크소재, 사이버룩, 미래주의 패션 · 패스트 패션 출현 · 파워슬더재킷, 펑크룩, 가죽재킷, 바이커재킷 80년대 북고풍 유행 	
	조형적 특징	실루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 · 오버사이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버사이즈 · 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티드 · 슬림
		디테일 · 장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랩포켓 · 패치포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드 · 머플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퍼 · 벨트
		색상 · 패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이트 · 아이보리 · 브라운 · 블랙 · 그레이 · 다크브라운 · 동물 무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이트 · 실버 · 그레이 · 다크레드 · 브라운 · 골드 · 블랙 · 기하학적 무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핑크 · 브라운 · 화이트 · 레드 · 블랙 · 그레이 · 실버 · 스트라이프, 플라워, 레오 파드 등 다양
		아이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롱코트 · 하프코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롱코트 · 하프코트 · 풀오버 · 재킷 · 후디재킷 · 후디코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숏재킷 · 볼레로 · 깃털재킷 · 하프코트 · 후디재킷 · 베스트 · 벨티드코트 · 롱코트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스 · 밍크 · 라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밍크 · 폭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래빗 · 폭스 · 밍크 · 램 		
미적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치성 · 우아성 · 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치성 · 우아성 · 관능성 · 활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치성 · 우아성 · 관능성 · 활동성 · 유머성 · 기괴성 		
대표 브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alentino · Revillon · Grosvenor · Oscar de la lenta · Dior · Cre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osvenor · Oscar de la Renta · Fur Vault · Grosvenor Company · American Legend · Marc Jacobs · Mohl Furs · Giuliana Tes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urcouncil · North American Fur Industry · Jean Paul Gaultier · Gucci · Nafa · Zuk · Musi 		
대표 디자인					

형태의 아이템도 등장하여 가볍고 기능적이며 실용성을 강조하였다. 2001년에는 모피에서도 핑크의 영향으로 키치적인 요소가 나타났는데, 아주 짧은 길이에, 소매를 긴 길이의 폭스와 여유있는 실루엣으로 부각시키고, 화려한 색상과 패턴의 옷과 함께 코디하여 재미가 강조된 요소들을 더했다. 또한 아방가르드하고 독특한 디자인으로 기이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모피패션들도 나타났다.

이처럼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모피패션에서는 사치성, 관능성, 우아성, 활동성, 유머성, 기괴성과 같은 미적특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미적특성을 토대로 4장에서는 현대 모피패션에 나타난 조형적 특징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IV. 현대 모피패션에 나타난 미적 특성

1. 사치성

사치성은 필요의 반대개념으로,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기쁨을 주거나 비싸고 손에 넣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파멜라 댄지거, 2006). 전체적으로 호화스럽고 과장된 장식이나 값비싸고 과장된, 풍부한, 지나치게 화려한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강준만, 2013).

이러한 사치성은 모피패션에서는 Mary Mcfadden, Grosvenor, Furcouncil 등이 발표한 코트와 재킷 등에서 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1987년 Mary Mcfadden이 발표한 모피코트로, 크고 과장된 오버사이즈 실루엣에 어깨를 덮을 만큼 큰 칼라가 특징적이다. 특히, 화이트와 브라운 색상이 뒤섞인 레오파드 무늬의 모피는 검은색 원피스와 대비되어 매우 화려하고 호사스럽게 보인다. <그림 6>은 1990년 Grosvenor의 코트로, 여기에는 광택이 뛰어난 고급의 밉크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네크라인과 소매에는 흰색, 은색, 회색 등이 믹스된 폭스로 풍성하게 장식하여 매우 호사스럽게 보인다. <그림 13>은 2000년 Furcouncil에서 발표한 럭셔리 패션이다. 슬림한 실루엣의 재킷에는 핫핑크와 레오파드 패턴이 정교하게 장식된 모피를 사용하여 사치스러움을 부각시켰다.

이와 같이, 모피패션의 사치성은 크고 과장된 오버사이즈 실루엣에 화려한 레오파드 패턴으로 된 모피코트, 풍성한 폭스로 호사스럽게 장식된 밉크코트, 핫핑크의 레오파드 패턴이 정교하게 장식된 모피재킷 등을 통해 나타났다.

2. 관능성

관능성은 주로 여성의 신체에서 오는 성적인 매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피트 되는 실루엣, 인체를 연상시키는 색상과 부드러운 촉감의 소재, 과한 노출 등에서 이러한 미가 나타나며, 여성의 복식에서 단순히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적인 면에서 벗어나 신체의 곡선을 강조하고, 노출하고, 장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된다. 변미연 외(2006)는 속옷의 노출, 속옷의 겹옷화, 이질적 요소의 결합, 애니멀 프린트, 착장의 변형 등을 통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수연(2005)은 복식에서 관능성은 특히 소재를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비치는 소재, 신축성, 광택이 있는 소재와 동물의 털이나 가죽, 깃털이 관능미를 극대화 시키는 소재라고 보고하였다.

Grosvenor, Marc Jacobs, Origin Assured 등이 발표한 모피패션에서는 이러한 관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림 4>는 Grosvenor가 1989년에 발표한 것으로, 오버사이즈 실루엣에 화이트와 그레이의 풍부한 톤으로 이루어진 부드러운 모피코트는 광택 있는 레드컬러의 미니드레스와 대비되어 섹시함이 부각되었다. <그림 8>은 1994년에 Marc Jacobs가 발표한 글래머러스룩이다. 재킷은 길이가 매우 짧고, 쉬어링 공법으로 부드럽게 깎은 화이트 밉크를 사용하여 노출된 긴 다리와 함께 관능미를 표출하고 있다. <그림 12>는 2009년 Origin Assured가 선보인 모피패션으로, 길고 풍성한 폭스로 된 베스트는 깊게 파인 가슴과 가느다란 팔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피패션의 관능성은 미니드레스에 위에 걸친 화이트와 그레이의 풍부한 톤으로 이루어진 부드러운 모피코트, 짧은 길이의 긴 다리를 노출시킨 부드러운 밉크재킷, 가슴과 팔을 강조한 풍성하고 부드러운 폭스 베스트 등을 통해 나타났다.

3. 우아성

우아성은 주로 여성적인 아름다움에서 오는 미적특성으로, 그 중에서도 고상하고 기품이 있으며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여성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고현진(2003)은 복식에서는 보수적이며 품위 있고 부드러운 실루엣과 곡선, 세련된 기교, 은은하고 부드러운 색상과 광택이 있는 고급소재, 정교한 장식 등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우아성은 모피패션에서는 Evans, Yves Saint Laurent, Rick Owens 등이 디자인한 코트, 볼레로 등에서 주로 나타났다. <그림 1>은 1982년 Evans의 폭스코트로, 실버색상의 고급스럽고 은은한 소재에서 오는 우아함이 큰 특징이다. 부드러운 폭스코트에 유사한 색상의 블라우스와 팬츠를 매치하여 차분하고 우아한 여성미를 더했다. <그림 5>는 1990년 Grosvenor의 디자인으로, 몸을 따라 부드럽게 흐르는 실루엣이 특징이다. 여기에 실버색상으로 된 탄력과 촉감이 좋은 밉크를 사용하여 코트의 우아함을 강조하였다. <그림 11>은 2007년에 Rick Owens가 발표한 것으로, 은은한 광택이 있는 실크 블라우스와 스커트에 실버 색상의 광택 있는 실크와 밉크로 된 볼레로를 매치하여 품위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이와 같이, 모피패션의 우아성은 실버색상의 은은하고 부드러운 폭스코트,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실루엣에 탄력과 촉감이 좋은 밉크코트, 슬림 실루엣에 실크와 밉크로 된 실버색상의 볼레로 등을 통해 나타났다.

4. 활동성

활동성은 의복이 기능과 실용적인 목적에 부합하여, 신체 각 부위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정은 외(2015)의 연구에서는 현대로 오면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몸의 움직임을 편안하게 하는 소재, 패턴, 재봉기술의 등장으로 의복에서의 활동성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스포티즘 등의 경향으로 활동성은 더욱 강조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활동성은 모피패션에서는 Grosvenor, Guess 등이 발표한 폴오버와 집업 재킷 등에서

주로 나타났다. <그림 7>은 1993년 Grosvenor의 스포티룩으로, 여유 있는 실루엣에 커다란 아가일 패턴이 있는 밉크를 사용하여 캐주얼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림 14>는 2002년 Guess의 집업 재킷으로, 핑크색상의 래빗을 사용하여 젊고 캐주얼한 느낌을 준다. 특히 소매단과 허릿단을 고무 밴드로 처리하고, 여밈을 지퍼로 하여 매우 기능적이다.

이와 같이, 모피패션의 활동성은 루즈 실루엣에 밉크로 된 폴오버, 고무단과 지퍼 등의 기능적인 요소가 특징인 래빗 재킷 등을 통해 나타났다.

5. 유머성

유머성은 평범함을 거부하는 장난스러운 것으로 익살스럽고 독특한, 유희적인 것, 의외성에서 느껴지는 놀라움, 풍자, 아이러니, 유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복식에서는 저속하고 조잡한 것, 비비드한 색상, 과장시킨 형태, 화려한 패턴 등에서 대부분 나타난다(김민자, 2013).

이러한 유머성은 모피패션에서는 Furcouncil, Jean Paul Gaultier 등이 디자인한 재킷·볼레로 등에서 주로 나타났다. <그림 15>는 Furcouncil가 2000년에 발표한 것으로, 짧은 길이에 비비드한 오렌지색상의 모피재킷이 특징적이다. 여기에는 기존의 모피아이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커다란 별 문양이 프린트되어 더욱 독특하고 유머러스한 요소를 더했다. <그림 9>는 2001년 Jean Paul Gaultier가 디자인한 것으로, 볼레로의 과장된 긴 소매가 매우 인상적이다. 소매는 풍성한 폭스를 이용하여 독특하고 재미있는 형태를 강조하였다. 여기에 화려한 셔츠와 팬츠를 매치하여 키치룩을 연출하였다.

이와 같이, 모피패션의 유머성은 선명한 색상의 독특하고 유머러스한 패턴으로 된 모피재킷, 과장되고 독특한 형태의 폭스 볼레로 등을 통해 나타났다.

6. 기괴성

기괴성은 외관이나 분위기가 의외의 조합으로 괴상하고 기이한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착장의

예절이나 순서, 규칙을 파괴하고 무 형태 또는 형태를 왜곡하거나 부적절하게 결합, 추레한 차림새나 제멋대로 연출한 차림새 등의 특징을 가진다(김민자, 2013). 박선영(2013)은 복식에서는 거대한 부피, 극단적으로 과장되거나 축소된 실루엣, 지나친 노출이나 은폐 등을 통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기괴성은 모피패션에서는 Nafa, Gucci 등이 디자인한 코트, 재킷 등에서 주로 나타났다. <그림 16>은 2001년 Nafa가 발표한 밍크 재킷으로, 비율과 형태가 과장된 솔갈라가 특징적이다. 칼라는 어깨에 닿을 정도로 폭이 크고 길이는 코트 단까지 연장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몸판과는 패턴이 다른 밍크를 사용하여 과장된 갈라를 더욱 부각시켜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림 10>은 2003년 Gucci에서 발표한 디자인으로, 아우터는 길고 부피가 큰 폭스를 사용하여 모호한 형태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흰색과 핑크색이 뒤섞인 컬러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피패션의 기괴성은 비율과 형태를 왜곡시키고 이질적인 소재가 결합된 밍크재킷, 여러 색상이 뒤섞인 길고 부피가 큰 폭스를 사용하여 모호한 형태를 강조한 아우터 등을 통해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대 모피패션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 후, 모피패션에 나타난 미적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피는 털이 달린 가죽을 말하는 것으로 동물의 생가죽, 또는 털 없이 무두질한 가죽과는 구별된다. 모피는 원료공급에 한계가 있고 가공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가격의 부담이 높고, 보관과 세탁 등 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르지만, 뛰어난 내구성과 보온성, 부드러운 촉감과 광택 등으로 인기가 높다. 그 종류로는 폭스, 라쿤, 밍크, 세이블, 친칠라, 스쿼럴, 래빗, 머스크랫 등이 있고, 가공법으로는 쉬어링, 플러킹, 양면처리, 레이저 등이 있다. 제조과정은 일반적으로 침전공정, 제육공정, 세척공정, 무두질공정, 깎기공정

순이다.

둘째, 1980년대 모피패션의 특징은 과시적 소비성향의 여피들이 주로 착용한 고급브랜드의 모피코트들에 있다. 특히 발렌티노, 디올, 오스카 드 라 렌타 등은 고가의 폭스와 밍크, 라쿤 등을 사용하여 우아하면서 럭셔리한 코트를 많이 선보였는데, 패드가 들어간 넓은 어깨와 넓은 칼라, 긴 길이와 거추장스럽고 거대한 부피로 과시적인 룩을 연출하였다. 1990년대의 코트는 화려하고 사치적이긴 하나, 점차 슬림해져 여성스러운 우아함을 강조하였고, 노출이 많아지면서 관능성도 부각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하위문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다양한 룩이 나타났는데, 모피패션은 길이가 짧은 재킷, 후드가 부착된 코트, 폴오버 등으로 스포티룩, 힙합패션을 완성하였다. 2000년대의 모피패션은 코트 외에도 재킷, 베스트, 볼레로, 집업재킷 등 아이템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기능적이고 활동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길이가 길고 화려한 패턴을 지닌 폭스나 독특한 컬러의 모피로 된 볼레로와 아우터는 키치룩과 아방가르드룩을 연출하였다.

셋째,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모피패션에 나타난 미적특성은 사치성, 관능성, 우아성, 활동성, 유머성, 기괴성이다. 사치성은 크고 과장된 오버사이즈 실루엣에 화려한 레오파드 패턴으로 된 모피코트, 풍성한 폭스로 호사스럽게 장식된 밍크코트, 핫핑크의 레오파드 패턴이 정교하게 장식된 모피재킷 등을 통해 나타났다. 관능성은 미니드레스에 위에 걸친 화이트와 그레이의 풍부한 톤으로 이루어진 부드러운 모피코트, 짧은 길이로 긴 다리를 노출시킨 부드러운 밍크재킷, 가슴과 팔을 강조한 풍성하고 부드러운 폭스 베스트 등을 통해 나타났다. 우아성은 실버색상의 은은하고 부드러운 폭스코트,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실루엣에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밍크코트, 슬림 실루엣에 실크와 밍크로 된 실버색상의 볼레로 등을 통해 나타났다. 그리고 활동성은 루즈 실루엣에 밍크로 된 폴오버, 고무단과 지퍼 여밈 등의 기능적인 요소가 특징인 래빗 재킷 등을 통해 나타났다. 유머성은 선명한 색상의 독특하고 유머러스한 패턴으로 된 모피재킷, 과장되고 독특한 형태의 폭스 볼레로 등을 통해 나타났다. 기괴성은 비율과 형태를 왜곡시키고 이

질적인 소재가 결합된 밉크재킷, 여러 색상이 뒤섞인 길고 부피가 큰 폭스를 사용하여 모호한 형태를 강조한 아우터 등을 통해 나타났다.

넷째, 모피패션의 미적특성을 살펴본 결과, 사치성, 관능성, 우아성은 꾸준히 나타났는데, 모피는 부드럽고 광택이 있는 고급소재로서, 여성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활동성은 1990년대 이후에 등장하였는데, 하위문화의 영향으로, 스포티룩의 모피패션이 선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유머성과 기괴성은 2000년대 이후 나타났는데, 이것은 70, 80년대의 복고풍의 영향으로 핑크룩, 아방가르드룩, 키치룩의 모피패션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모피는 다양한 미를 표출하는 패션의 소재가 되고, 모피패션은 사회·문화적 요인과 디자이너의 조형의지에 의해 변화되고 있으며, 모피패션의 미적특성 또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다혜. (2007). *현대 모피 패션 디자인의 이미지 특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준만. (2013). *교양영어사전2*. 서울: 인물과사상사.
- 고현진. (2003). *복식에 표현된 엘레강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금기숙, 김민자, 김영인, 김윤희, 박명희, 박민여, 배천범, 신혜순, 유혜영, 최해주. (2012). *현대패션 110년*. 파주: 교문사.
- 김민자, 최현숙, 김윤희, 하지수, 최수현, 고현진. (2010). *서양패션 멀티콘텐츠*. 파주: 교문사.
- 김민자. (2013). *복식미학*. 파주: 교문사.
- 김지영. (2014). 밉크 모피 제품의 소모량 산출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6(2), 177-188.
- 김지영. (2014). 모피류의 상품화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6(3), 135-149.
- 박선영. (2010. 8). 2010 F.W Trend Keywords. *ALLURE*, 자료 검색일 2015. 5. 12, 자료출처 http://www.allurekorea.com/content/view_03.asp?menu_id
- 박선영. (2013). *현대패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미연, 이인성. (2006). 장 폴 고티에 의상디자인에 나타난 관능미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8(2), 37-45.
- 신상욱. (2006). *서양복식사*. 서울: 수학사.
- 안병기. (2004). *피복재료학*. 서울: 경춘사.
- 이유형. (2009). *모피 패션을 위한 디자인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형. (2015. 8. 7). 램·스포티·블루 3박자 모피 뜬다. *한국섬유신문*, 자료 검색일 2015. 5. 12, 자료출처 http://www.ktnews.com/sub/view.php?cd_news=95181
- 이정은, 신혜영, 이인성. (2015).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포티즘 디자인 특성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1(2), 529-541.
- 임주희. (2009). *모피패션 디자인 기획 모형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세연. (2011). *하이브리드 모피 브랜드 플래닝 : Faux fur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홍숙. (1997).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 최인려, 방혜경, 정은주, 안현숙, 김월숙. (2007). *패션 소재와 봉제*. 서울: 교문사.
- 파멜라 댄지거. (2006). *매스티지 마케팅* (최기철 역). 서울: 미래의창. (원저 2005 출판)
- 패션큰사전 편찬위원회. (1999). *패션큰사전*. 서울: 교문사.
- 편집부. (1997). *FASHION전문 자료사전*. 서울: 한국 사진연구사.
- 한국모피제품 공업협동조합. <http://www.kfic.kr/main/>
- 한넬로레 에베를레. (2000). *의류과학과 패션* (금기숙 역). 서울: 교문사.
- 한수연(2005). *현대패션에 표현된 글래머 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Calasibetta. (2006). *페어차일드 패션 대사전* (박기완 역). 서울: 노라노. (원저 2002 출판)
- James Cochrane. (2011. 11). 이번 시즌 모피 핫 키워드 4. *VOGUE GIRL*, 자료 검색일 2015. 5. 12, 자료출처 http://www.voguegirl.co.kr/content/view_03
- Mendes, V. & Haye, A. (2009). *20세기 패션* (김정은 역). 서울: 시공아트. (원저 1999 출판)